

# ‘브리검 성공 복귀’ 키움, 임병욱·러셀 가서로 더 강해진다

3연패 탈출...본격적 선두경쟁 불붙일 전망

임병욱·김웅빈도 조만간 1군 돌아올 예정

부상 선수가 돌아오고 새 외국인 타자 에디슨 러셀이 가세할 키움 히어로즈가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키움의 외국인 투수 브리검이 지난 14일 선두 NC 다이노스전에 복귀,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키움은 36승25패로 2위를 탈환하며 NC(39승11패)를 5경기 차로 추격했다. 2017년부터 키움에서 활약해온 브리검은 팀의 에이스다. 하지만 올해는 5월 4경기에 뒤 뒤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했다. 당초 3주 정도 결장이 예상됐지만, 재활이 길어졌고 14일 1군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 어려운 분위기에서 마운드에 오른 브리검이었지만 공격적인 투구로 승리를 따냈고 팀은 연패의 수

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키움은 브리검 외에 앞으로도 전력 상승 요인이 많다. 핸스투링 부상으로 빠져있는 임병욱과 허벅지 통증에 시달리던 김웅빈도 조만간 1군에 돌아올 예정이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의 에디슨 러셀은 7월말 가세한다. 손혁 키움 감독은 “임병욱과 러셀이 오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병욱은 외야에서 힘을 보탤 수 있다. 우익수 이정후를 제외하면 외야 전력이 약한 키움으로서는 임병욱이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손 감독은 “임병욱의 복귀 시점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본인이 완벽하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면서도 7월말 합류하는 러셀보다는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 김웅빈 역시 복귀가 멀지 않았다. 김웅빈은 이번 주부터 퓨처스 리그에서 기술훈련을 시작하고 연습경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웅빈은 러셀과 비슷한 시기 1군에 합류할 전망이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외국인 타자 러셀이다. 키움은 지난 5월말 테일러 모터를 방출한 뒤 긴 기다림 끝에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러셀을 영입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로 인정을 받았던 러셀이 팀에 가세하면 박병호(1루수), 서건창(2루수), 김하성(3루수), 러셀(유격수)로 내야진을 구성할 수 있다. 땅볼 유도형 투수가 많은 키움에게는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브리검도 “러셀이 합류하면 우리팀 내야 수비는 리그 최고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러셀은 지난 8일 입국,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키움은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을 통째로 빌리고 배팅 케이지 등



14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키움과 NC의 경기에서 키움 선발 브리검이 역투하고 있다.

을 설치해 러셀이 자가격리 중에도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손 감독은 “러셀이 훈련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음식도 잘 먹는 등 잘 적응하고 있다. 약 두 달 동

안 외국인 타자가 없었는데 오면 팀에 활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1

## ‘득점 선두’ 주니오, K리그1 11라운드 MVP 선정

시즌 세 번째 등극

멀티골을 넣으면서 울산 현대를 선두로 이끈 ‘득점 선두’ 주니오가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1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지난 1, 2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라운드 최우수 선수 등극이다. 주니오는 지난 12일 대구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10분 신진호의 도움을 받아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어 대구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2-1로 불안하게 리드하던 후반 36분에는 김인성의 어시스트를 빼기골로 연결했다. 울산은 결승골을 비롯해 추가골을 넣은 주니오의 활약을 앞세워 3-1로 승리, 8승2무1패(승점26)가 되면서 전북 현대(8승1무2패·승점25)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주니오는 베스트 11 공격수 부



문에서도 지언학(인천), 이동준(부산)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 4명은 이승기(전북), 신진호(울산), 조재완, 이재권(이상 강원)이 선정됐다. 수비에는 박준강(부산), 불투이 스(울산), 이태희(성남)가 뽑혔고 최고의 골키퍼는 부산 아이파크의 김호준이 차지했다. 11라운드 베스트 팀은 광주FC를 4-1로 완파,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강원FC가 선정됐고, 울산과 대구의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뽑혔다. K리그2 9라운드 최우수 선수는 서울 이랜드FC의 수쿠타 파수가 차지했다. 수쿠타 파수는 11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후반 28분 하프발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어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 한화 이글스 브랜드 반스, 자가격리 오늘 해제

다음 주 선수단 합류



한화 이글스 선수단이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외국인 용병 타자 브랜드 반스를 이르면 다음 주 중 야구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영입한 외국인 타자 브랜드 반스(34)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준치인 자가격리 생활을 마치고 충북 옥천을 떠난다. 한화 이글스가 재러드 호잉을 방출하고 영입한 반스는 지난 2일 입국했다. 반스는 이날 한화 이글스 구단 관계자와 충북 옥천군보건소를 찾았다. 반스는 이곳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절차였다. 반스는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자가격리 생활하고 있다. 16일이면 반스가 이곳서 생활한 지 꼭 14일째 되는 날이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이다. 김재중 옥천군수는 이날 자가격리를 마치고 떠나는 반스를 격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 야구 전문가는 “반스가 2주간 자가격리 중에 개인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실전 감각을 익히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달 말쯤 첫 타석에 오를 것으로 본다”고 했다.

## “DVD 나간다”...아스널 팬, 손흥민에 인종차별 발언

사과 없는 해명 방송...AFTV, 결국 해명 영상 삭제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10골-10도움’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날 인종차별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13일(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도우면서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1골과 1도움을 추가한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단일 시즌 ‘10골-10도움’을 달성했다. 또한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EPL에서 두 자릿수 득점과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대기록을 달성, 개인적으로 기

억될 만한 경기에서 손흥민은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 세계적인 아스널 팬 네트워크인 ‘AFTV’는 지난 13일 7명의 패널리이 모여 토트넘과의 북런던 дер비를 지켜보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토트넘이 2-1로 이기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에릭 라멜라와 교체되자 패널 중 한 명이 “DVD 나간다(DVD's going off)”고 말했다. 영국에서 DVD는 아시아계 사람을 인종차별 할 때 쓰는 용어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복사한 DVD를 길거리에서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손흥민은 3년 전 밀월 서포터스에게 이 같은 발언을 들은 바 있다. 2005년 올버햄튼에서 뛰었던

설기현 경남FC감독도 ‘DVD’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듣기도 했다. 구독자 117만 명이 넘는 AFTV 영상 속 인종차별 발언은 SNS를 통해 축구, 토트넘 팬들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발언을 한 패널은 AFTV를 통해 15일 “나는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토트넘이 이기면 DVD를 출시하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과 없는 해명 방송은 논란을 더 키웠고 AFTV는 결국 해명 영상을 삭제했다. AFTV 운영자 로비 라일은 자신의 SNS에 “토트넘전 영상에 나온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늘 올라갔던 해명 영상에 대해서도 사죄한다”고 밝혔다.

## 여수 육상팀, 전국종별육상선수권 3개 메달 ‘캐저’

금 1개·은 2개 획득

여수시청 육상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9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서 3개의 메달(금1·은2)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진민섭은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5m60을 넘어 5m20의 한두현(국군체육부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진민섭은 5m40을 1차 시기에 넘어 우승을 확정했다. 이어 5m60을 넘어 뒤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5m80보다 1cm 높은 5m81에 도전했으나 신기록 달성에는 실패했다. 20km 경보에서는 이세하가 1



진민섭 선수. 시간 42분 14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은정이 1m65cm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땀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악조건에도 선수들이

끊임없이 훈련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정말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오타니, 개막 동시 ‘투타 겸업’ 나선다

일본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26·LA 에인절스)가 2020 시즌 개막전부터 투타 겸업에 도전한다. 스포츠넷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조 매든 에인절스 감독은 15일(한국시간) “오타니는 개막과 동시에 투수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전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당

시부터 투타 겸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오타니는 그해 10월, 팔꿈치 수술을 받아 지난해는 타자로만 시즌을 치렀다. 하지만 투수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고 긴 재활을 거쳐 회복해 이번 시즌 다시 한 번 투타 겸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회복상태 및 실전감각이 우려되는 상황. 더군다나 올 시즌

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0경기 미니 시즌으로 치러진다. 이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타니의 투타 겸업 여부는 불확실했다. 여기에 오타니가 최근 두 차례 연습경기에 등판, 무려 13사구를 날리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샀다. 그럼에도 매든 감독은 오타니를 신뢰했다. 그는 “오타니가 시즌 개막부터 투수로 던질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